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16호 현대불교 25
2010년 12월 29일(음 1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올해는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인의롭고 자비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불제자로서, 아니 불제자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으니 알로 낚는 거나 태로 낚는 하(下)의 동물이나 또는 질척한 데서 낚는 거 화해서 낚는 거, 이러한 사생들의 그 모든 살림살이가 우리네 살림살이와 같다는 그 점을 우리는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더욱더 인의롭고 자비하게 가진다면, 전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버리는 마음, 일체 방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가 나한테 해(害)가 되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생을 하려고 억지로 늘부처럼 잡아다가 낚는 게 방생이 아니라 남이 괴로워할 때 스스로 마음을 내려 한마디 해 줘서 마음의 안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생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없어서 애들 등록금을 못 낸다거나 이럴 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학비를 내게 해 주면 그것도 방생입니다. 고기가 물 바깥에 나와서 펄펄 뿔 때에 물에 넣어 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마음 하나하나 내 주는 것도 전부 방생입니다. 방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생을 따로 할 양으로 늘부처럼 잡아다가 넣어 준다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듯이 평화롭게 사는데 불잡아다가, 일제 시대 때 탄광으로 보내고 이리듯이 불잡아다가 그렇게 한다면 불잡는 데 죽고, 또 잡아 가지고 가는 데 죽고, 갖다 넣는 데 죽는단 말이예요. 그럼 갖다 넣는 데까지도 좋어요. 갖다 넣으면 고기도 저 놀던 데로, 저희 집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심리가 되든 오백리가 되든 상관없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찾아가는 거고 가다가 허기가 저서 죽기도 하고 또 그 물에 적응을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쓰고 온통 야단을 해서 거북이도 넣고 그러지마는, 내가 볼 때는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일이에요. 달리 살생이 아니라 그제 살생이라고요! 영똥나가게 이런 말은 왜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마는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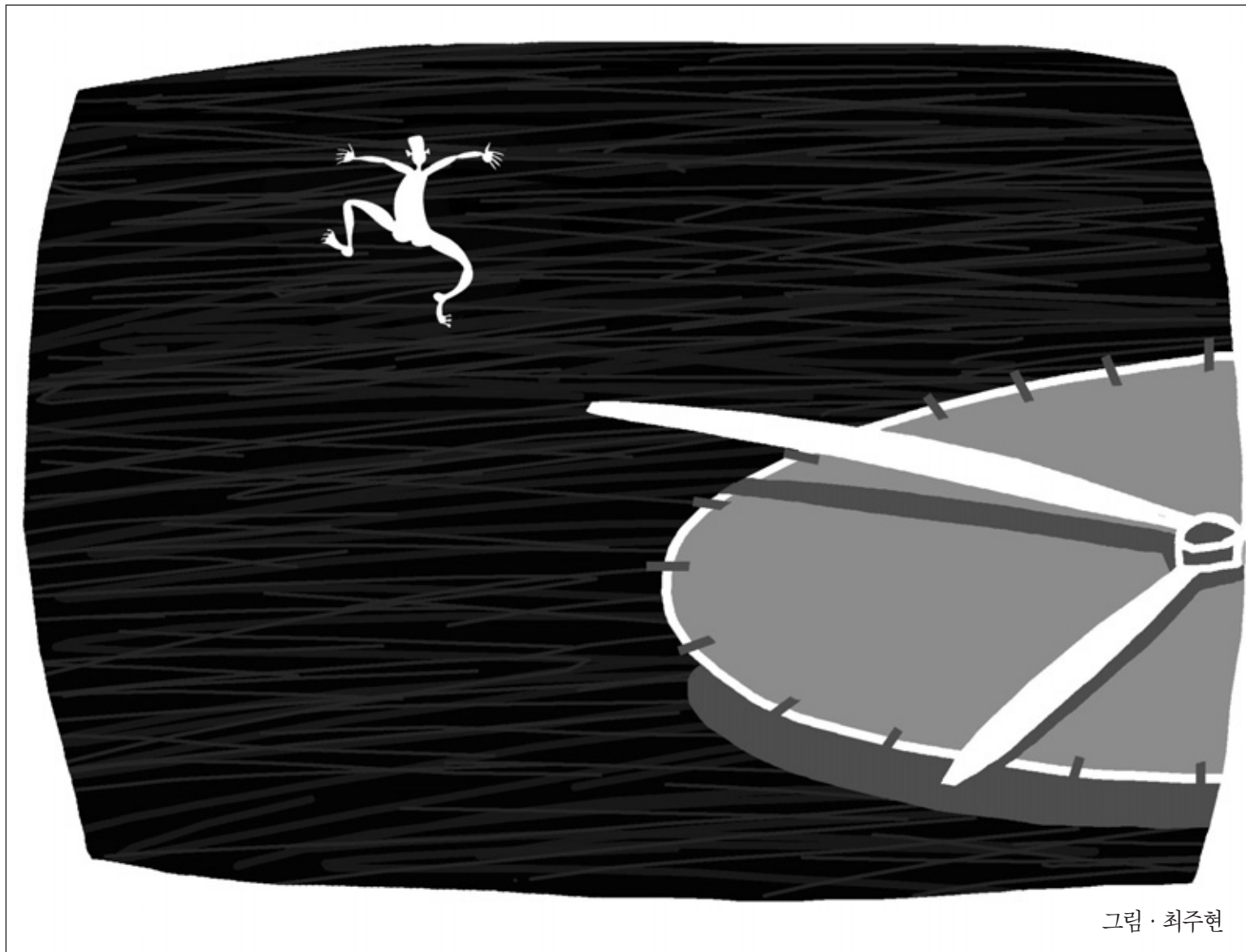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자식들이 부모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하는 게 위하는 건지... 옛날에 저도 산골 같은 데를 이 집 저 집 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처음에는 사실 참 여겨울 때가 많았어요. 문 바깥에다가 질동이 삐뚜러진 거 하나 놓고 거기다 오줌을 누거나 냄새는 지독하지, 또 방에는 지직을 깔았지요. 그런데 그 지직도 그냥 쪼각쪼각 모은 거 갖다 깔고 이불은 새카맣고 큰 거 하나 깔고 발들만 전부 넣고선 자는 거예요. 또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진눈깨비가 올 때면 그냥 애들이 마당에다 누어 놓은 똥이 흐치흐치 해서 가지고요, 발 디터

놓을 데가 없어요. 산골에 가 보면 그런 촌이 있어요.

그래서 새새 뉘고 들어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배 속에도 지금 똥이 잔뜩 들어 있고, 갖은 각색으로 생김 생김을 가지고서 지금 모두 똥벌레처럼 그냥 헤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똥벌레라면 저 똥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겨운 것이 싹 가시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무난히 들어갔죠. 그런데 그제 참 이상해요.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자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누추해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나

도 거지인걸, 뉘' 속으로 그러면서 옆에서라도 끼어서 앉았다가 가겠노라고 그랬죠. 그제 앉았으면서 또 똥 그렇게 밧을 넣고 자는 거 보니까... 하여튼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는 게 모두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듯 '어쩌면 부모 자식 형제가 모두, 내가 더 잘났는지 내가 더 잘났는지, 내가 더 잘사는지 내가 더 잘사는지,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야단을 하고 사는 이 이치가 얼마나 복잡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밤을 새우고선 나오는데, 묵순 거를 채 썰어서 간장물에다 이렇게 해서 양념도 없이 그냥 먹더군요. 그래 나도 그거 한 그릇 얻어먹고는 고마워서 내려오면서 '아이고 참, 애들도 쌀 구경 하나 못하고 참 안됐구나! 누구네 부잣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라도 좀 들봐 주고 저 집에 쌀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모 든 게 마음에 달렸어요. 이 도리를 꼭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니 지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어느 집을 보게 됐어요. 아주 큰 문이예요. 아주 솟을대문집이고 부잣집인가 봐요. 보기도 집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죠. 뭐, 모자도 그냥 다 떨어진 거 하나 쓰고 옷도 그냥 찢어진 걸 쫓종이어서 입고, 그때만 하더라도 옷이 그렇게 든든칠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룻밤 들렀다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나오더니 "아이고, 지금 우환이... 아침에 별안간에 우리 마님이 쓰러져 가지고는 지금 야단병석이 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냥 갈까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우리 영감마님한테 여쭙어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더군요. 그렇게 착한 집들도 있어요. 그 집 마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언제 병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별안간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묵 먹은 집, 그 집 생각이 나더라 얘기에요. '응, 그 집을 내가 도와줬으면 했더니 미리 와서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놔구나.' 참 그제 얼마나 묘한 일인지 모두 모르실 겁니다. 이게 다 비밀이예요. 허허, 내가 그런 줄 알면 나한테 물매 들어오게요? 허허... 그래 인제 심국이 웃고선 그 뉘, 뉘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다 인제 낫이 되니까 밥을 들어왔어요. 그래도 밥을 좀 주더군요.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나이가 연소하시지마는 그래도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